

# 제주도의 사신신앙

## - 본풀이와 의례를 중심으로 -

박병훈\*

### 目 次

- |         |
|---------|
| I. 머리말  |
| II. 본풀이 |
| III. 의례 |
| IV. 맺음말 |

## I. 머리말

2007 종교학과 제주도 답사 이틀째에 관청할망당을 들렀다. 관청할망당의 본이름은 안할망당으로, 여기서 안할망이란 안찰성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일관헌 건물 뒤 팽나무 밑에 석단을 쌓은 위에 기와를 마주 포개어 그 속에 비녀와 구슬을 놓아 身體로 모셨다. 지금은 제단 위 감실 양 옆에 짚을 안에 들어 있는 기와가 있고, 감실 속에는 비녀와 구슬을 담은 색동 주머니가 들어 있는 기와가 있다.<sup>1)</sup> 이러한 관청할망당의 모습은 蛇神신앙<sup>2)</sup>을 바탕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2007 종교학과 답사자료집 『삶과 종교가 어우러진 섬, 제주도, 그 섬에 가고 싶다 ...』 p. 18.

2) 뱀신앙, 칠성신앙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예전의 기록에서부터 蛇神이 나타난

사신신앙이란 육지와는 구별되는 제주도의 뱀에 대한 신앙을 말한다.<sup>3)</sup> 뱀을 칠성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칠성신에는 뒤결 정결한 곳에 칠성놀이라는 주저리를 씌워 모신 밧칠성(밧할망)과 집안 고팡(庫房)의 쌀독에 모신 안칠성(안할망)이 있다.<sup>4)</sup> 제주도 사람들은 뱀이 나타나면 해하지 않고, 가만히 구멍으로 들어가게 놔두거나 술이나 쌀을 뿌리며 곱게 들어가도록 놔두는 경우가 많고, 뱀을 모시면 집안에 부귀를 가져온다고 믿기도 한다.<sup>5)</sup>

역사적으로 볼 때, 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은 다음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冲庵 金淨이 중종 15년(1520) 8월에 제주로 이배되고, 다음해 10월까지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저술한 「濟州風土錄」에는 다음과 같이 뱀을 숭앙하는 모습이 보인다.

풍속에 몹시 뱀(蛇)을 꺼려하여 이것을 신(神)이라 해서 받들어서 이것을 보면 곧 술(酒)로 주문을 외우며 거룩한 신(神)으로 하여 감히 좃가내

다는 점, 칠성이 七星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신신앙이라는 용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물론 칠성신앙의 칠성이 七星일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 글에서는 단지 동음이의의 관계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제주도의 뱀신앙을 龍蛇신앙으로서 파악하려는 시각도 있다(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v. 15, 1995, pp. 21-23 참조할 것).

- 3) 육지에도 업신앙과 같이 뱀(구렁이)을 모시는 신앙이 아직 남아 있으나, 제주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모셔지지 않고, 또 뱀과 관련한 본풀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 4) 이러한 연유는 칠성신의 내력을 푸는 칠성본풀이의 말미에 잘 나타난다.
- 5)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에 뱀이 나타났을 경우, 죽여버리겠다란 응답이 11.9%, 어떤 방법으로 멀리 치워버리겠다란 응답이 35.5%, 구멍으로 들어가도록 곱게 놓아 두겠다란 응답이 35.5%, 술이나 쌀을 뿌리며 곱게 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응답이 17.1%이다.

뱀을 모시는 비율은 안칠성(‘고팡에 제물 진설하는가’)의 경우가 21.7%, 밧칠성(‘칠성놀이를 모시는가’)의 경우가 6.0%이다. 안칠성을 모시는 것(‘고팡에 제물을 올리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믿는 이는 30.6%이고, 밧칠성(칠성놀이)을 모시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믿는 이는, 칠성놀이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41.4%이다.

한편 안칠성이 본래 뱀임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22.5%, 칠성놀이에 모신 신이 밧칠성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27.0%에 불과하다. 즉, 제주도 사람들의 많은 이들이 뱀신앙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v. 15, 1995, pp. 48-59 참조).

거나 죽이지 않는다.<sup>6)</sup>

「濟州風土記」<sup>7)</sup>에는 다음과 같이 뱀이 많은 제주도의 환경과 제주도민의 풍속을 서술하고 있다.

섬 중에서 두려운 것은 구렁이(蟒蛇)가 제일 무섭다. 겨울, 여름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있는데, 여름 날이면 풀이 자라고 장습(瘴濕)한 때면 규방(閨房)이나 집 처마나 마루 밑에서 자리 아래까지도 들어 올 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면 조심하여 피하려 해도 어찌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다.

섬 사람들은 큰구렁이(大蟒)와 배암(蛇)을 구별함이 없이 보기만 하면 이를 부군신령(府君神靈)이라 하여 쌀(精米)과 정수(淨水)를 뿌리면서 그에 빌며 이를 살해하는 바가 없다.<sup>8)</sup>

李元鎮의 「耽羅志」<sup>9)</sup>에도 비슷한 서술이 등장한다.

또한 이 지방에는 뱀 독사 지네(蜈蚣)가 많은데 흑시 회색 뱀을 보면 차귀의 신이라 해서 금하여 죽이지 아니한다.<sup>10)</sup>

위와 같이 제주도민들은 예로부터 뱀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뱀

- 6)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 金淨, 洪貞杓 역,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1976, p. 9.
- 7) 선조의 제7남 인성군은 인조 6년(1628) 작위를 삭탈당하고 진도로 유배되고, 그의 처자들은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 그들은 인조 13년(1635년)이 되어서 본토로 돌아갔다. 이 기록은 인성군의 셋째 아들 李健이 8년 동안 제주도에 적거하면서 저작한 것이다.
- 8) 「島中 可畏者 無過於蟒蛇 無論冬夏 到處有之 至於夏日 草長藏習之時 閨房屋簷 床底 席下無不穿入 若是夜黑 睡牢之時則 雖慙謹避 勢不可得 此是第一可畏者也 島入則 勿論蟒蛇見之 輒謂之府君神靈 必以精米淨水酒 而祈之切不殺害」, 金泰能 역, 李健,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 1976, pp. 194-195.
- 9) 李元鎮이 효종 2년(1651년) 58세 때 제주목사로 도입하여 효종 4년까지 있었다. 「耽羅志」는 효종 4년 가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 10) 「又地多蛇虺 蜈蚣 若見灰色蛇則 以爲遮歸之神 禁不殺」 李元鎮, 金行玉 역, 「耽羅志」, 『耽羅文獻集』, 1976, p. 213.

을 신성한 존재로 숭앙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사신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풀이<sup>11)</sup>의 이야기구조를 중심으로 사신신앙을 이해해 보려 한다. 그 가운데 의례적인 측면도 소략하나마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 II. 본풀이

뱀을 신으로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크게 일반신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이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sup>12)</sup>

일반신본풀이에는 칠성본풀이<sup>13)</sup>가, 당본풀이에는 월정당 본향본풀이, 김녕굴당 본풀이, 송당계넉깃당 본풀이, 토산 여드렛당 본풀이 등이, 조상신본풀이에는 나주 饑民倉 祖上, 옹포리 진도할망조상, 선홀리 안씨 집안 조상 등이 속한다. 그 각각의 관계는 다소 상이하게 여겨지나 또한 공통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이를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sup>14)</sup>

11) 제주도의 본풀이란 말은 ‘木을 푼다’는 것으로 내력, 정체를 파악하는 의미를 지닌다. ‘신들의 이야기’ 신화에 해당하는 말이 본풀이인 것이다.

12) 이 구분은 현용준·현승환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반신은 인간생활의 일반적인 事相을 관장 지배하는 공통적인 신이고, 당신은 한 마을 주민의 일들을 관장 수호하는 부족수호신이고, 조상신은 어떤 집안이나 씨족에 모셔지면서 그 집안 내지 씨족을 수호해주는 신이다. 사신에는 일반신, 당신, 조상신이 존재하는 것이다(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v. 15, 1995, p. 4 참조).

13) 이름만 같고, 다른 내용의 칠성본풀이도 존재하는데, 이 칠성본풀이는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과 관련된다. 이 칠성과 뱀으로서의 칠성의 관계는 이름만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이나, 같은 이름 때문인지 신화 속에서 연결될 때도 있다.

14) 현용준의 『제주도신화』를 통해 칠성본풀이, 월정당본향본풀이, 나주 기민창 조상을 살폈다. 김녕굴당과 토산 여드렛당은 주로 진성기의 「제주도의 뱀신앙」을 참고하고, 부분적으로 『제주도신화』를 이용하였다. 한편 조상신본풀이에는 나주 기민창 조상, 옹포리 진도할망조상, 선홀리 안씨 집안 조상 중 가장 구조가 잘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나주 기민창 조상 본풀이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토산 여드렛당의 경우 뒷이야기가 더 있으나, 이야기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생각되

표 1. 뱀신에 관한 본풀이 구분<sup>15)</sup>

구분	일반신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칠성본풀이	월정당 본향본풀이	김녕굴당 (괴노깃또)	토산 여드랫당	나주 기민창 조상
자식이 없음	장나라 장설룡 과 송나라 송설 룡 부부가 원살 이 되도록 자식 이 없음	황토 고을 황정 승이 사십이 되 도록 슬하에 자 식이 없음			
자식 기원	동관음사에 가 불공을 하며 자 식을 뵈.	동관음사에 가 불공을 하며 자 식을 뵈			
출생	정성이 부족하 여 딸이 태어남	정성이 부족하 여 딸이 태어남	소천국의 열여 덟 아들 중 열 여섯째 아들		
딸을 두고 떠남	7살 되는 때, 비 술을 살리오라 는 말에 딸을 방 에 가두고 종에 게 맡긴 후 떠남	7살 되는 때, 비 술을 살리오라 는 말에 딸을 남 겨 두고 떠났다 시 불공을 드리 라는 말을 어김.)			
잘못을 저지름	뒤를 따라가려 살짝 빠져나왔 다가 길을 잃고 저앉음. 종이 기씨를 데려감	아버지를 따라 가다가 실패하 고 구렁이로 환 생	발을 갈다가 소 를 먹어치움		
편지	종의 편지에 부 모님이 돌아옴	어머니의 편지 에 아버지가 내 려옴			
발견	부모님을 중을 잡아들이려 할 때, 도망가고, 임신한 아기씨 를 발견	집에 돌아와 살 펴보니 딸자식 방에 구렁이가 있음	부모님이 그를 알고 책망함		
상황적 배경				본디 나주 영 산 금성산의	제주도에 기근 이 들어 조천관

기에 생략하였다.

- 15) 연대기적 순서를 우선시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칸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내용이 존재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칸에서 해당내용이 서술된다.

				신. 목사가 부 임해 와서 아 기씨의 모습을 한 뱀을 만남. 목사의 지시에 뱀으로 변함	안씨선주가 쌀 을 구하려 나주 에 갑
뱀(여 성)의 본래 있던 장소로 부터의 이동	아기씨를 죽이 려다 무쇠석갑 에 띄워보냄	무쇠석갑에 구 령이를 띄워보 냄	무쇠상자에 태 자를 얹혀 띄워 보냄	뱀을 죽임. 뱀 은 바둑돌로 변하여 서울 종로 네거리로 떨어짐	처녀아가씨(뱀) 가 배에 올라탐
영험				제주도에서 서 울로 올라온 강씨성방일행 이 바둑돌의 영험을 봄.	사고를 당해 뱀 이 구멍을 막음
도착	이리저리 들어 갈 곳을 찾다가 겨우 썩은 개로 올라감	뒷개의 북덕개 에 무쇠석갑이 떠오름	용왕 황제국 혹 산호 윗가지에 걸림		배가 무사히 조 천 포구에 닿음
상자를 열	송첨지가 열어 봄	김첨지가 열어 봄	셋째 딸이 열어 봄. 부부가 됨.		
추방/ 이동			태자의 식성으 로 인해 용궁에 서 쫓아보내고 강남 천자국으 로 가게 됨		
제주도 로돌아 옴			진공을 올리고 제주도로 돌아 감		
부정	일곱 잠수가 석 갑을 보고 다투 고, 송첨지가 열 어보고 뱀 여덟 마리를 발견하 고 부정한 것을 저지름	뱀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람		바둑돌을 버림	
용험	일곱 잠수와 송 첨지가 병을 앓 음	김첨지와 딸 셋 이 병을 앓음		바람이 없어 제주도로 돌아 갈 수가 없음	
점복을	점복을 받고 모	점복을 받고 구		점복을 받고	

통한 원인 파악 및 해결	셔 병이 낮고, 거부가 됨	령이를 모셔 아 이를 살림		고사를 드려 돌아오게 됨(버렸던 바둑돌이 되돌아옴)	
좌 정	함덕마을의 성당에 모심	칠 구렁이 집 뒤 굴나무에 가 좌 정	태자를 본 부모님이 도망쳐서 좌정함. 태자는 한라산 백록담에 자리잡음.	여성이 배에서 내리고 토산리에 좌정(*도착과 함께 좌정)	새춧알의 굴 속으로 좌정하여 새춧알망이 됨
부부가 됨		그날 밤 아기씨로 다시 환생. 점복을 하여 신산국이 배필이 됨을 알고 만나 배필이 됨	용왕국의 공주를 대부인으로, 한라산 오백장군의 외딸아기를 소부인으로 정함		
옮겨 다시 좌정	함덕마을을 빠져 나와 제주성으로 향함. 금산물에서 쉬다가 송대정부인이 싸서 고방에 갖다 모셔 부자가 됨	서당머체(월정리내의 지명)에서 서당할마님으로 좌정. 아 이 일곱을 낳음	큰당한집과 같이 한라산에서 내려와 여기저기 다닌 끝에 흥협을 부려 괴 뇌기굴속으로 들어가 좌정		
돼지고 기 부정		돼지고기 부정 저질러 신산국과 갈라섬			
사람들의 승앙	칠성들은 조화를 부려 사람들을로부터 잘 얻어 먹으며 지냄	조화를 부려 돼지를 잡아 제를 지내는 법이 시작	소 대신 돼지를 잡아올림.	단골들의 후한 대접을 받음	안씨선주 상단골에서 고방에 부군칠성으로 모셔, 정성을 다함.
안칠성, 밧칠성	어미는 안칠성, 일곱자식은 밧칠성이 됨				
비고		돼지고기 부정 나타남. 돼지제사 받음	육식. 돼지제사 받음		
	중국으로부터 옴	중국으로부터 옴	본래 존재(추방당했다 되돌아옴)	본토로부터 옴	본토로부터 옴
	여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위에서 보듯 여러 다양한 성격의 뱀신에 관한 본풀이가 있다. 제주

도의 뱀신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고, 본래 있던 경우라도 외부인으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쫓겨나 다시 들어오게 되기도 한다. 이동이 중시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온 경우는 위에서 대상으로 다룬 본풀이의 경우 중국에서 온 경우와 본토로부터 온 경우가 있다. 중국에서 온 경우는 칠성본풀이와 월정당본향본풀이가, 본토로부터 온 경우는 토산여드랫당 본풀이와 나주기민창 조상 본풀이가 있다. 본래 있던 경우는 괴뇌깃또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동의 양상을 살펴보자면, 중국에서 온 경우는 무쇠석갑을 통해 제주도로 오게 된다. 감금상태에 있던 딸이 일종의 금기를 어기게 되고, 부모님에 의해 무쇠석갑에 갇혀서 제주도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과거 유배지였던 제주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죄를 짓고 오게 되는 장소로서 본토보다는 제주도가 적절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낸 이동을 통해 신격으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sup>16)</sup> 여기서 제주도 신앙민은 흥협에 의해 사신을 받들게 되는데, 이는 수동적인 수용의 측면에만 머문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도민은 제주도 안에만 머물고 있고, 외부에서 이동해 온 사신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사신은 본래 인간(여성)이었지만, 뱀으로 변하게 된다.

본토에서 온 경우는 제주도민의 이동에 의해 수용되게 된다. 여기서는 사신과 제주도민의 이동이 둘 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토산리 여드랫당의 사신은 본래 나주 영산 금성산의 신인데, 목사의 부임으로 죽게 되나 바둑돌로 환생하여 서울 종로 사거리로 떨어지게 된다. 이곳에서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찾아온 제주도민들이 바둑돌을 줌게 된다. 그리고 이 바둑돌의 영험으로 진상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나, 후에 바둑돌을 버리고는 바람이 없어 제주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이들은 곳을 하게 되고 제주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바둑돌을 발견하고 다시 버리려 하나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사신은 제주도에 내려서 좌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제주도로부터 와서 제주도로 되돌아가는 제주도민이 매개체가 되어 사신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16) 르네 지라르적 입장에서 이 딸은 일종의 희생물로서 신적인 속성을 부여받는다 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나타난다. 나주 기민창 조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민을 구출하기 위해 올라온 제주도민의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사신의 모습이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본래 이들은 자신이 자리잡고 있었던 지역에서도 사신으로서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즉 본래 이들은 사신이다. 제주도민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여성으로 변한다.<sup>17)</sup>

괴노깃또의 경우 본래 제주도에 있었으나, 잘못을 저질러 부모님에 의해 무쇠석갑에 갇혀 동해로 가게 된다. 동해에서 그는 용왕의 셋째 딸과 결혼을 하게 되나, 왕성한 식욕으로 그는 용궁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시폭걸리 배(작고 빠른 배)를 타고 강남 천자국(중국)으로 가서 전공을 올리고, 그로 인해 용왕 패도선을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를 버린 부모님을 다시 만나려 하나, 부모님들이 집을 먹고 도망간다. 이후 풍운조화를 통해 좌정을 하고 신앙민들의 숭앙을 받는다. 여기서는 제주도에 용궁을 거쳐 중국을 가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되며, 제주도에 쫓겨나도록 한 부모님을 오히려 쫓아내는 구조가 나타난다. 특별히 여기서는 뱀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편 위의 과정 중에서 뱀신들은 좌정처를 찾기 위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격들과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과정에서 뱀신들은 자신을 모시지 않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

17) 토산 여드랫당의 경우도 바둑들의 모습으로 배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나올 때는 여성으로 변하여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나주 기민창 조상에서는 배에 탈 때와 내릴 때 둘 다 여성의 모습을 띤다.

18) 칠성본풀이의 경우를 보면, “그러나 제주성 안의 산지 포구에는 산지 용궁칠머릿당의 세번도원수가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무쇠 석갑은 동쪽으로 돌아 화북으로 들어가려 해 보니, 그 마을의 가릿당신이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 물개로 들어가려 하니, 그 마을 당신 시월도병서가 세고, 설개로 들어가려 하니 개로육서또가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동쪽으로 돌아 (중략) 한 걸음 더 동쪽으로 나아가기로 하여 세화리로 들어가려 해 보니, 천자·백주·금상님이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와 같이 기존 세력과 갈등이 잘 나타난다(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pp. 215-216 인용. 본문의 괄호는 생략하였다).

좌정체를 마련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강한 외래적 성격<sup>19)</sup>을 보이면서도, 육지보다 더욱 강하게 뱀신앙이 나타난다는 점은 제주도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구조를 정리해 볼 때 “추방-제주도에 도래-모시지 않는 이들에게 홍협을 내림-좌정-모심을 받음”<sup>20)</sup>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구조는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동을 통해 신격으로서의 힘을 획득하여 홍협을 내리고 좌정체를 얻을

표 2. 사신의 이동과 상태변화 양상

구 분	본래지역 (상 태)	이동수단 (상 태)	이동지역 (상 태)	이동수단 (상 태)	이동지역 (상 태)	이동수단 (상 태)	이동지역 (상 태)
칠성본풀이	중국 (여성)	무쇠석갑 (여성 혹은 뱀)	제주도 (뱀)				
월정본향 본풀이	중국 (여성)	무쇠석갑 (뱀)	제주도 (뱀)				
괴뇌깃또	제주도 (남성)	무쇠석갑 (남성)	용궁 (남성)	시폭걸리 배(남성)	중국 (남성)	용왕패도 선(남성)	제주도 (남성 혹은 뱀)
토산여드 랫당	본토 (사신)	하늘에서 떨어짐 (바둑돌)	서울 종로 (바둑돌)	배 (바둑돌/ 여성)	제주도 (사신)		
나주기민 창조상	본토 (사신)	배(여성)	제주도 (사신)				

19) 이수자는 본토의 구렁이업신앙과 관련지어, 본토와 제주도에서 뱀을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이고 뱀의 신적 직능이 둘 다 부신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들어 공통의 뿌리가 존재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칠성맞이제 같은 것도 예전에 본토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수자, 「구렁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기원(1) — 칠성맞이제 및 칠성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보』 v.5, 1995, pp. 189-172 참고).

20) 좀 더 요약하자면, “추방-도래-홍협-좌정-숭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한편으로 칠성본풀이와 월정본향본풀이는 표에서 보듯, 강한 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 두 본풀이의 비교에 대한 논문으로 김현선의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를 참고.

수 있는 것이다.<sup>22)</sup> 그리고 이 이동과정에서 무쇠석갑, 배 등의 이동 수단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 III. 의례

일반신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본풀이에서의 뱀신에게 바치는 의례는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풀이와 같은 내적 측면과 함께 의례의 외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일반신본풀이의 대상으로서의 뱀신에 대한 의례는 제주도 무속계의인 큰굿 속에서 ‘각도비님’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각도비님은 ‘집안의 각 곳을 관장 수호하는 신에게 비는 의례’로, ‘공선가감, 날과 국섬김, 집안연유담음, 본풀이(칠성본풀이 신화), 구송, 비님, 주잔넉님, 산받아 분부사뵈름’의 순으로 진행된다.<sup>23)</sup> 이를 통해 집안의 부를 빌고, 풍농을 기원한다.

한편 뱀을 죽인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병에 걸리면 ‘칠성새남’이라는 큰굿을 통해 병을 치유한다. ‘칠성새남’에서 환자는 뱀을 죽인 자를 찾아 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때 뱀을 죽인 자를 교만한 악신 ‘허멍이’로 단정하여 죄를 다스리는 대목을 ‘허멍이놀림’이라 한다.<sup>24)</sup>

둘째, 당본풀이의 대상으로서의 뱀신에 대한 의례는 토산 여드랫당에서 잘 나타난다. 여드랫당은 제의를 8일, 18일, 28일에 치른다.<sup>25)</sup> 토산당굿은 「방울뿔」이라 해서 긴 무명에 4개의 고를 묶은 후 뱀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노래를 부르며 고를 풀고, 마지막에는 뱀의 재생

22) 본래부터 신격이었던 경우도 이동을 통해 그러한 힘이 더 강해진다. 토산 여드랫당에서는 목사에게 폐배하였고, 나주 기민창 조상에서는 창고가 비어가기에 따라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본래의 지역에서 이들의 힘은 강하지 않다.

23) 이수자, 「구령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 기원(1) — 칠성맞이제 및 칠성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보』 v.5, 1995, p. 160 인용 및 참고.)

24) 문무병, 「제주도의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p. 160 참조.

25) 참고로 토산리의 또 다른 당인 일뿔당은 7일, 17일, 27일에 제의를 치른다. 이 당에서는 뱀신을 모시지 않는다.

을 상징하는 재차가 있다.<sup>26)</sup> 한편 신앙민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가 당에 오지 못할 때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sup>27)</sup> 당신앙과 조상신앙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토산리에서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처녀에게 뱀신이 따라온다는 속신이 있다. 이 속신으로 인해 토산리의 처녀들을 결혼상대로 기피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따라온 뱀신은 잘 대해야 하며, 잘못할 경우 재앙을 입게 된다.

셋째, 조상신본풀이의 대상으로서의 뱀신에 대한 의례는 나주 기민창 조상에서 보면 작은 곳을 매년하고, 큰곳을 하며 차례나 제사 때 매 한 그릇을 정성으로 고평에 올려 고사 지낸다고 한다.<sup>28)</sup> 또 안칠성, 밧칠성에 대한 의례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교식의 조상숭앙제사를 따르는데, 제사, 명절, 대·소상 등에는 매, 채소 등으로 차린 제물을 고평 쌀독 뚜껑위에 차린다. 단, 절이나 축원은 하지 않는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실제적인 뱀에 대한 의례는 뱀이 보일 때, 주문을 외우거나 술을 주며 쫓아내지 않는 것 정도라는 것이다.<sup>29)</sup> 일반신본풀이에서의 뱀은 부와 풍요의 힘을 지닌 다소 추상적인 존재이고, 뱀신과 관련된 당에서도 실제로 뱀을 모시는 것은 아니다. 뱀의 神體는 수목, 암석, 신의, 신기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신앙민들은 뱀신의 정령이 그곳에 깃들여 있다고 믿는 듯하다.<sup>30)</sup> 또

26)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v 15, 1995, p. 16.

27) 같은 논문, p. 17.

28)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무은 조손의 주당(주당)은 해 넘는 철갈이로 삼진 정월 신과제로 상을 받으옵고, 큰곳에는 열두석시, 중단골에 여섯석시 앞면제 삼석시 일천간장을 풀리옵고, 큰곳 호민 큰밭 나습고 죽은곳 호민 죽은밭 나수와 (중략) 안씨선조(안씨선조) 상단골 무어 연양상고팡으로 삼명일(삼명일) 기일제스 (기일제사) 메훈기(일기) 정성 받고 조손덜 번성시겨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 796.)

29) 앞서 인용했던 『탐라지』의 기록에서와 같이, 요즘에서도 그러한 풍속이 남아 있다.

30) 진성기, 「제주도의 뱀신앙」, 『한국문화인류학회』 v. 10, 1978, pp. 112-113.

안칠성은 비록 고팡에 모시나 그 신체가 없고, 밧칠성은 집뒤의 청결한 곳에 기왓장을 하나 깔아 오곡을 넣고, 그 위에 기왓장을 덮는데 오곡이 일종의 신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뱀은 크게 뱀과 상관 없어 보이는 신체로 관념화되어 의례를 통해 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형상 목사와 관련한 광정당의 전설에서 실제로 뱀신을 불러낸 것을 생각해 볼 때,<sup>31)</sup> 후대에 와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 IV. 맺음말

위에서는 뱀신앙에 대한 본풀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5가지의 본풀이를 서로 화소별로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공통적인 구조를 추출해 내었다. 즉, ‘추방-도래-홍험-좌정-승양’의 구조이다. 이에 더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개입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뱀신앙의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뱀신의 이동적 성격(추방 및 유입)을 통해 보았다. 이때 이동양상에 따라 다른 특징들 또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의례에서는 본풀이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에 대응시켜서 각각의 의례를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실제적인 뱀과 신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았다.

제주도의 뱀신앙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각각의 본풀이들이 서로 얽히고설켜서 다채로운 모습을 띠고 있고, 그 성격 또한 다양하다. 실

31) “대정 산방상 길가에 음사(淫祀) 광정당(廣淨堂)이 있어 여기를 지날 때 하마(下馬)하지 않으면 말 다리가 절곤하였다. 이형상(李衡祥)이 순행(巡行)하여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숙(吏屬)이 하마하도록 여쭙었으나 듣지 아니하였는데 과연 말 발이 절어 들었다. 형상(衡祥)이 손수 그 당에 이르러 무당으로 하여금 말을 죽여 제사케하고 귀신이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요사스런 이무기(鱗)가 나타나서 사명기간(司命旗竿)을 독아(毒牙)로 물어 뜯었다. 이에 이무기를 베고 신당을 불살랐다. 이로부터 음사가 근절하였다.” 大靜山房路邊 有淫祠曰廣靜堂 過者不下馬則馬蹇 李衡祥巡行至此 吏白下馬不聽 馬果蹇踢 衡祥親到其堂 使巫刑馬以祭 求見其神 妖鱗出現 毒嚼司命旗竿 遂斬之燒其堂 自此淫祠遂絕(金錫翼, 金啓淵 역, 『耽羅紀年』, 『耽羅文獻集』, 1976, p. 401.)

제 제주도 신앙민들의 뱀에 대한 태도 또한 흥미롭다. 이러한 제주도의 뱀신앙에 대해 그동안 적지 않은 수의 논문이 나왔다. 그러나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본토의 뱀신앙과의 관련성을 따지는 작업이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일본 및 중국 등 아시아지역과의 뱀신앙의 비교연구도 보다 분명하고 자세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金淨 外, 洪貞杓 외 공역,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 김현선,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v. 28, 2005. 문무병, 「제주도의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 연구」, 『송실어문』 v. 11, 1994.
- 이수자, 「구렁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 기원(1) — 칠성맞이제 및 칠성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보』 v. 5, 1995.
- 진성기, 「제주도의 뱀신앙」, 『한국문화인류학회』 v.10, 1978.
- 탁명환, 「제주 사신신앙에 대한 소고 — 토산당 뱀신앙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인류학회』 v. 10, 1978.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v. 15, 1995.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76.
-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Abstract

## Sasin Bonpuri and Ritual in Jeju Island

Park, Byoung-hoon

There are many attractive myths in the Jeju island: SASIN BONPURI. This paper focused on SASIN (蛇神: god of snake)'s the type of migration of the snake (Sasin) of the SASIN BONPURI in the Jeju island. General God BONPURI(CHILSEONG BONPURI), Shamanism Shrine BONPURI, Jo-Sang (祖上: ancestor) BONPURI, these three myths are SASIN BONPURI. Each of these myths has different features in character of SASIN. The aspects of moving make these different features. And this paper treats rituals about SASIN basically. As there are three SASIN BONPURI, we can analyse the rituals into three. With this study of SASIN BONPURI, we can understand the spatial construct of SASIN BONPURI.

Key word: SASIN (蛇神 god of snake), SASIN BONPURI, CHILSEONG BONPURI, JEJU ISLAND, SNAKE MYTH